

기업

14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26일 온라인으로 열린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21' 로고. 콘퍼런스에서는 '빅스비', '스마트싱스', '삼성 녹스' 강화 방안 등이 공개됐다. 사진제공 | 삼성전자

삼성전자 개발자 콘퍼런스 개최 빅스비·스마트싱스 등 강화한다

반응 속도 최대 35% 증가·IoT 호환기기 확대

삼성전자는 26일(미국 현지시간)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21'(SDC21)을 열고 차세대 기술을 선보였다. 2019년 이후 2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치러졌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보안 플랫폼 혁신과 타이젠 기반 스크린 경험 확장, 갤럭시 생태계 강화 방안 등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빅스비', '스마트싱스', '삼성 녹스' 등 플랫폼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3억 대 이상의 삼성기에 적용된 AI 플랫폼 빅스비의 성능을 높인다. 최신 스마트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기기 자체에서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반응 속도가 최대 35% 빨라졌다. IoT 플랫폼 스마트싱스의 연결성과 호환 기기도 확대한다. '스마트싱스 허브' 소프트웨어를 TV와 패밀리허브 냉장고 등 삼성 제품에 탑재해 해당 제품에서 다른 기기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선보인 최신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 볼트'는 보안 프로세서와 보안 전용 메모리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한층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TV 사용 경험을 확장하는 새 기능도 소개했다. TV 화상통화의 경우,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AI 기반으로 인물을 포커스하거나 zoom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TV용 삼성 헬스에서는 TV를 웹캠, 모바일 기기와 연결하면 스마트 트레이너가 사용자의 운동을 분석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한다.

라이선스를 통해 타이젠 생태계도 확대한다.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TV 제조업체는 삼성전자의 노하우를 활용해 다양한 기능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모바일 기기 최신 사용자경험(UX)인 '원 UI 4'도 공개했다. 원 UI 4는 사용자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정보 이용권한을 조정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폴더블폰으로 폼팩터(하드웨어 형태)가 확장됨에 따라 개발자들은 플렉스 모드, 멀티 액티브 윈도우 등 삼성 폴더블폰 고유의 사용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수많은 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해 온 세상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만큼 모두의 삶을 더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이건희 회장 타계 1주기 맞아 떠난 평전 '경제사상가 이견희'



고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은 한국경제를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사진 왼쪽부터 1987년 11월 삼성그룹 회장 취임식, 2010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16라인 기공식에서 첫 삽을 뜨는 이견희 회장(왼쪽), 2013년 10월 '삼성 신경영 선포 20주년' 기념식식 기록물을 살펴보는 이견희 회장(가운데)과 부인 홍라희 여사(오른쪽). 스포츠동아DB

혼돈의 시대, 위대한 경영자에게 길을 묻다



경제사상가 이견희
(허문명 저 | 동아일보사)

기업인이 아닌 인간 이견희 조명
처음 공개되는 인터뷰 다수 수록
이견희 컬렉션 통한 철학 곱씹어
고인의 여록, 미래 설계 '나침반'

"글로벌 코리아는 '비포(before) 이견희'와 '애프터(after) 이견희'로 나뉜다."

25일은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이 타계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경제사상가 이견희'는 고인의 1주기를 맞아 고인 가까이에서 일했던 전직 삼성맨 등 다양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중심으로

로, 고인이 남긴 에세이집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를 부분 발췌해 고인의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다. 이 회장은 기업인이자 시대를 앞서 읽은 예언자였으며, 세상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지혜를 일러준 사상가였다.

이 책의 저자는 허문명 동아일보 기자이다. 지금까지 이 회장을 다룬 책은 많이 있었으나 모두 그의 리더십과 기업경영능력에 국한된 측면이 있었다. 반면 저자는 오랜 기자생활을 통해 얻은 취재력과 경험을 활용해 기업인이 아닌 사상가로서의 '인간 이견희'를 본격 조명한다. 전직 삼성맨들의 증언, 고인이 남긴 글과 자료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책을 완성했다.

저자에 의하면 이 회장은 깊고 넓은 통찰과 지식의 소유자였다. 그 영역은 경제경영 전반은 물론 물리학, 수학, 사회학 심지어 아동심리학까지 넘나들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문화, 역사에 통달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사상과 철학의 바탕 위에서 이

회장은 새로운 변화에 과감히 맞서 도전했고, 변화의 속도만큼 절박한 태도로 기업을 움직였다. 생전에 이 회장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단순한 경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성의 성공비결은 '이 회장의 집념'

이 회장은 전통적인 제조업이 주류였던 한국의 산업을 디지털 정보산업으로 바꾸었다. 한국의 산업사가 '비포 이견희'와 '애프터 이견희'로 나뉜 것이다.

책 속에는 처음 공개되는 인터뷰들도 다수 수록됐다. 인형무 변호사의 '학교 일진을 때려 눕혔던 건희', 기보 마사오 등 삼성전자 초기에 영입됐던 일본인 기술인 고문의 장문 인터뷰, 아마자키 가쓰히코 니혼계자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증언 등은 모두 최초로 공개되는 내용이다. 기보 전 고문은 삼성의 가장 큰 성공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 회장의 집념 때문이었다"라고 단언한다.

저자는 '미술과 기술이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화제가 됐던 '이견희 컬렉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선'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초일류를 지향했던 고인의 생각과 철학을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 많다.

이 회장은 기업이 단순히 제품만 파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철학과 문화를 팔아야 한다고 누구도 강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관심과 노력은 빠르게 실천으로 옮겨졌다.

이 책이 단지 한 위대한 기업인에 대한 업적 찬양이나 위인전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던 시기에 끊임없이 위기를 경고하고 변화와 혁신을 역설했던 고인의 삶과 생각이 독자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1993년 신경영 현장에서 변화를 진두지휘했던 고인의 말들은 '여록'으로 남아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유용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앞날을 설계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나침반이 되기에 충분하다.

양형호 기자 hmyang0307@donga.com

“놀아도 제대로 놀아라” “부자 옆에 줄서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만들어라”

●故 이견희(1942~2020) 회장 말·말·말

▲삼성그룹 회장 자리가 크고 중요한 자리이지만 내 성격, 스타일에는 반도 안 찬다. 삼성인에게 평생직장을 주고 세계 초일류 기업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때문에 하루 4시간밖에 안 자면서 일하고 있다.

▲사장보다 월급을 세 배, 다섯 배를 더 주더라도 더 나은 사람을 뽑아오라.

▲출근부 찍지 마라. 없애라. 집이든 어디에서든 생각만 있으면 된다. 구태여 회

사에서만 할 필요 없다. 6개월 밤을 새워서 일하다가 6개월 놀아도 좋다. 놀아도 제대로 놀아라.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뀌야 한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뀌어야 한다.

▲과장에서 부장까지는 5시까지는 정리하고 모두 사무실을 나가세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200~300년 전에는 10만~20만 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 21세기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20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회사와 나라의 손해다.

▲부자 옆에 줄서라. 산삼 밭에 가야 산삼을 캐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대화를 나누고 경험해봐야 한다.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들어온 떡만 먹으려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만들어라. 실패한 사람은 문제만 보고, 성공한 사람은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떡이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떡을 만들 해법을 찾는 행동을 하라.

▲인색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무엇이든 큰 것인지를 판단하라.

▲더운밥 찬밥 가리지 말라. 뱃속에 들어가면 찬밥도 더운밥이 된다.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을 못 뱉는다. 마음에 풍요를 심어라.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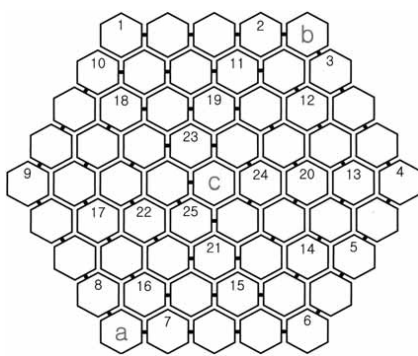
		1		4		7		
		7		6		8		
	3	2				9	5	
4			7	3	5			9
	2						6	
9			4	2	6			8
	6	8				5	4	
		4	5		6			
		9		7	1			

		7	3	2	4	8		
9								3
	4		9		8		2	
		6	4		2	1		
	9						8	
		1	8		9	2		
	8		7		6		5	
5								6
		2	5	9	3	4		

■ 스도쿠정답

8	8	1	7	2	9	6	5	3
2	6	9	8	5	3	7	4	1
7	5	1	6	2	8	9	3	4
8	7	3	9	7	5	1	6	2
5	9	7	6	1	8	2	4	9
6	1	2	5	8	1	9	8	7
7	5	6	2	8	1	2	3	9
1	8	9	2	9	6	4	7	5
9	2	7	3	7	5	1	6	8
9	1	7	3	6	5	2	9	4
9	2	6	1	8	2	7	5	9
2	5	8	9	7	1	6	8	1
7	8	5	2	6	8	1	5	7
7	8	5	2	1	9	3	6	2
6	3	1	2	5	7	9	4	8
1	2	9	8	1	6	5	7	3
8	7	2	5	9	1	8	2	6
9	6	8	7	2	3	4	1	9

■ 낱말문제



■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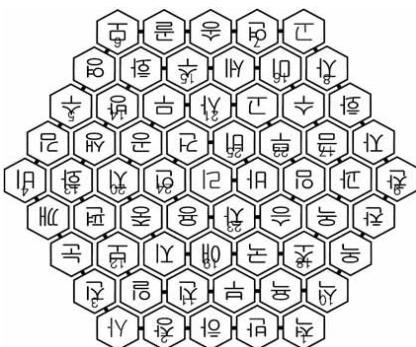
01.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 02.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길게 늘어선 모양을 이르는 말. 03.비가 섞여 내리는 눈. 04.장기나 바둑에서 비기게 되는 수. 05.해엄 칠 때에 쓰는 모자. 06.곰직한 일을 당할 때 두려

워 몸이나 털이 곤두선다는 말. 0. 굴○연' 07.혈통, 정본, 법을 따위로 맺어진 관계나 인연이 있는 사람. 08.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 09.곱게 잘 쪼은 입쌀로 지은 하얀 쌀밥. 10.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욕망이 줄어듦. 11.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 12.널리 일반인에게 퍼짐. 13.화학, 생물학, 방사는을 아울러 이르는 말. 14.불이 났을 때에 불을 끄도록 마련한 물. 15.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 16.거두어들이지 못한 돈. 17.금처럼 귀중한 여겨 꼭 지켜야 할 법칙. 18.조국에 대한 사랑. 19.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양. 20.지극히 공정한 사사로움이 없음. 21.사방에 걸쳐 놓은 네 개의 북을 치며 춤

을 추는 고전 무용의 하나. 22.차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탐. 23.남의 돈을 빌려 쓴 사람. 24.사람을 부르는 데에 드는 비용. 25.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 여성.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a~c칸을 이어놓으면 식물 이름이 됩니다.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